

차세대 티맵·주행거리 379km... 편리성 높이고 속 '깍' 채웠다

자동차 시승기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모터’

가격 거의 올리지 않아 차시장 ‘주목’
출력 421마력에 전작보다 13마력 ↑
누구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

폴스타가 전기차 침체 속에서도 인기를 지키고 있다. 볼보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로 시작해 전동화 브랜드로 독립, 이제는 높은 주행 성능에 럭셔리와 가격 경쟁력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폴스타는 최근 폴스타2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다. 부분 변경 모델이면서도 바꾸지 않은 부분을 찾기 어려울 만큼 큰폭으로 개선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폴스타2는 제원부터 싹 바뀌었다. 듀얼모터 롱레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최고출력이 421마력에 주행거리 379km로 각각 13마력, 45km나 늘었다.

심지어는 구동 방식도 전륜에서 후륜 기반 AWD로 변했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인버터를 비롯해 구동계를 최첨단 기술로 대체하고, 세팅과 소프트웨어도 대폭 개선한 덕분이다. 전후 무게 비율도 거의 똑같이 맞췄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강원도 원주



폴스타2 페이스리프트.

까지 140km 가량을 다녀와보니, 승차감 개선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모터 개선은 물론 위치까지 변경하면서 럭셔리 모델답게 변신했다.

주행 성능은 가히 폭발적이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거침없이 최고 출력을 뽐낸다. 가속력이 강력하다보니 속도 변화를 쉽게 느끼지 못할 정도다.

주행 거리도 확실하게 늘었다. 전비 주행을 하면 전기가 거의 줄지를 않았다. 고속 주행을 하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스스로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 구동을 켜고 끄기 때문

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개선했다. 볼보가 사용하는 티맵과 누구 서비스, 폴스타에서도 일부 전용 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리 프로그램을 설정하면 명령어 하나만으로 다양한 작동을 한번에 실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속을 다바꿔놓으면서도 외관은 그릴 부분만 조금만 손댔다. 마치 마스크를 쓴 듯 ‘스마트존’을 덧붙인 것. 콘셉트카를 더 가까이 재현하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이다.



(위쪽) 페이스리프트 실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일부 개선했다. (아래쪽) 페이스리프트에 추가한 스마트존.

/폴스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회생 제동 장점은 그대로 가져왔다. 차량 메뉴에서 원페달드라이브 수준을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표준을 선택하고 크립 모드를 OFF로 하면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고, 반대로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고 크립 모드를 ON으로 하면 내연기관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한 주행감을 제공한다. 모드가 아닌 개별 설정을 제공해 운전자의 의지를 중시한 셈이다.

파일럿 어시스트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휠 왼쪽 버튼을 몇번만 누르면 A SCC나 파일럿 어시스트를 바로 작동할

수 있다.

그밖에도 모든 인터페이스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주행 모드는 물론, 시동 버튼도 없음을 정도다. 탄소 감축을 위해 부품 협력사도 대거 교체했다고 폴스타는 친환경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가격은 6090만원으로 전작보다 소폭 인상했고, 대신 일부 옵션을 기본 장착하고 전비 향상으로 보조금을 늘렸다. 플러스팩과 퍼포먼스팩 가격은 동일하지만 고급 옵션을 추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KT, 지능형 UAM 교통관리 시스템 ‘첫 선’

도심항공교통 비행시연 행사 참석
5세대 이동통신 항공망 기술 소개
UAM 전용 5G 기술 ‘스카이링크’

KT가 지난 3일 전남 고흥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연 행사’에서 지능형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개발 기체와 국내 최초 버티포트 등을 이용한 비행 시연으로 한국형 UAM의 실증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KT는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과 함께 전시 부스를 구성해 KT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5세대(5G) 이동통신 항공망 기술을 소개했다.

KT의 UAM 교통관리 시스템인 ‘스카이아이즈’는 인공지능(AI) 교통관리



KT가 지난 3일 전남 고흥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23년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연 행사’에 참가해 지능형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KT 관계자가 관람객에게 KT UAM 교통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KT

기술로 UAM의 안전한 운항과 효율적인 운항 스케줄 관리를 돕는다. UAM 교통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토대로 운항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운항 스케줄을 도출할 수 있다. 또 끊임 없는 통신으로

UAM 기체의 비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행 상황의 실시간 변화에 따라 동적 교통관리도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KT는 UAM 전용 5G 항공망 기술인 ‘스카이링크’도 알렸다. 이 기술에는 UAM 운항 고도에서 커버리지 홀이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3차원 커버리지 설계 기술과 주요 트래픽의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5G 항공망 커버리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특화 안테나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UAM의 운항 고도인 300~600m에서도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KT는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에서 교통관리 분야에 참여한다.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5G 항공망 기술을 활용해 UAM의 안정적인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스타항공, 신기재 활용 운임 경쟁력 확보

10호기 도입 완료... 올해만 7번째

이스타항공이 10호기(HL8549) 도입을 완료하며 노선 확충 계획을 이어간다. 이번 10호기는 올해 일곱 번째 도입된 기체로 B737-800 기종이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3월 B737-800 기체 3대로 재운항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6월 4호기를 도입한데 이어 7월 5호기, 8월 6,7호기, 9월 8호기, 10월 9호기를 도입하고 이날 10호기 도입으로 올해 총 7대의 기체를 추가

도입했다.

10호기 도입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차세대 신기종 B737-84대와 B737-8006대로 연초 목표한 총 10대의 기단을 완성했다. B737-8과 B737-800 기체는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되고 운항 시스템이 유사해 효율적인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시장 ‘도전장’

현지 4개 기업과 4건 MOU 체결

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잠수함 전문 포럼 ‘딥 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화오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캐나다 기업은 CAE, J-스퀴드 테크놀로지스, 모데스트 트리, 데스네데 등이다.

CAE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으로 전세계 시뮬레이터 시장 75% 점유하고 있다. J-스퀴드 테크놀로지는 전장 부품 제작과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 보수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가상현실(VR) 훈련장비 및 시뮬레이션 제공 업체인 모데스트 트리는 향후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 교육 훈련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되는 업체로 꼽힌다. 캐나다 원주민 기업인 데스네데는 건설 업체로 잠수함 관련 시설 건설 협력을 담당한다.

한화오션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캐나다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을 추진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인베스트먼트, 645억 청년창업펀드 결성

로보틱스, 클라우드 등 집중 투자

KT인베스트먼트가 단일 펀드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645억원 결성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모태펀드, 기업은행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고 KT는 250억원을 출자했다.

KT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이 펀드는 지난 4월 KT인베스트먼트가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사업 청년창업 일반 분야에서 8대 1의 경쟁을 뚫고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KT인베스트먼트는 이후 7월 서울시

스케일업 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돼 IBK기업은행, 신한자산운용, 성남산업진흥원, 유경PSG자산운용, 인스파이어파트너스 등이 참여하면서 결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청년창업펀드는 KT인베스트먼트 창립 이래 단일 펀드 기준 최대 규모다.

KT인베스트먼트는 이번 펀드가 탭티어 벤처캐피탈(VC)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로보틱스 ▲클라우드 ▲기업간거래(B2B) 소프트웨어 ▲(모바일) 서비스/플랫폼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